

영국의 '디지털 시어터(Digital Theatre)'와 창작진들의 고민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영화관에서 영상으로 보는 연극. 이런 장르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복무하는 연극인들에게도 이젠 적절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공연장은 단연 공연예술의 유통 창구이지만 공연의 제작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공간을 확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1일 공연 횟수를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는 이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환경에서 2009년 영국은 여러 매체에서 연출가로 활동하던 로버트 데라미르(Robert Delamere)와 동료였던 톰 쇼(Tom Show)가 당시 영국 사회를 이끌던 극단과 공연장을 설득해 그들의 작품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회원제로 일반 관객(digitaltheatre.com)들과 교육기관(digitaltheatreplus.com)들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했고 이것이 '디지털 시어터(Digital Theatre)'의 출발이 되

었다. 공연과 같은 예술작품을 마음껏 향유하는 것이 마치 인권의 한 가지로 생각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버린 로버트와 톰은 놀랍게도 세계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의 디렉티이자 직원이다.

열 살이 되어가는 '디지털 시어터'는 이제 왕립세익스피어극단(RSC), 로얄코트(Royal Court), 올드빅(Old Vic), 리전트파크 야외극장(Regent's Park Open Air) 등 영국 최고의 공연 단체와 극장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연극 작품을 고화질로 영상화해 일반에 주문형 비디오(VOD), 실시간 재생(Streaming)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정액제 방식으로 모든 작품을 볼 수 있거나 개별 작품을 선택해 결제하고 48시간 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최근 내가 만든 작품인 <All My Sons>와 '디지털 시어터'와의 작업은 예술적,
그리고 물론 상업적으로 최고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작품의 성격을 최대한 살려 최고의 영상품질을 유지하면서 진행된 촬영본으로
이번 작품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관객들에게 관극 기회를 주었을 뿐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예술가에게도 완벽한 영상기록 자체로 큰 선물이 되었다.

- Kim Poster, West End theatre producer, Stanhope Productions

'디지털 시어터'가 작품성을 담보한 세계의 우수한 연극 공연 무대를 개인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안방에서 또는 내 핸드폰,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배달해 주었다면 런던의 국립극장(NTL)은 이를 위성으로 중계해 장소를 집에서 영화관으로 옮기면서 단체 관람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국립극장 라이브(National Theatre Live)'가 그것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런던의 '국립극장 라이브' 역시 출발점이 2009년으로 '디지털 시어터'와 시기를 같이한다.

프랑스의 극작가 장 라신(Jean Racine)의 비극 <페드르(Phedre)>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40편 이상 스크린에서 상영이 되었는데, 종합하면 2,000여 개의 국내외 극장에서 550만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품이 너무 커 상업 제작사에서 라이선스를 하지 못했던 <워 호스(War Horse)>를 시작으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과, 한국에서도 영국의 유명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 berbatch)

가 무대에 오른 연극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국내 팬들이 몰린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은 재상영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물론 시차가 상당한 중국이나 한국에서 보여지는 '국립극장 라이브'는 위성이 아닌 우편으로 전달되는 고화질 블루레이(Blu-ray)다. 여기에 영상과 자막을 맞춰보고 몇 차례 리허설을 통해 상연된 후 바로 영국으로 반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공연을 촬영하는 동안 관객이 극장 객석 가장 좋은 위치에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된 카메라의 움직임이 '국립극장 라이브'의 핵심이다. 클로즈업(Close-up)이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은 무대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영화의 화법이다. 하지만 영상 문화에 익숙한 지금의 관객에겐 열연으로 땀 흘리는 배우의 얼굴이나 소품으로 등장한 말의 세세한 관절 움직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연극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관람을 마친 관객들이 마치 연극을 본 것처럼 박수를 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어색하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작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어 공연계의 히트 상품으로 꼽힐 만하다.

아쉽지만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언급된 원본(무대공연)이 가진 아우라의 유무는 철지난 논쟁이 되어버렸다. 이제 영국의 지방에 살고 있는 관객들도 이 나라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최고의 연극 작품을 배우들에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팝콘과 함께 무대보다 더 사실적인 방식으로 관람을 하게 된 것에 대부분 환영하는 모습이다.

생각해 보면 '국립극장 라이브'가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무대공연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영화와 연극을 넘나드는 촬영의 질적 수준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확장성 면에서 큰 도약이었고, 생방송이니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국내외 관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또 반복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 대단한 모험이며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는 오직 한 번의 공연엔 무대 뒤에서 공연을 만들어내는 창작진들 역시 이번 공연이 일반적인 공연 관객을 넘어 그 층을 대폭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광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을까?

최근 들어 '국립극장 라이브'가 영국 내외에서 반복 상영이 이루어지며 자리(시즌 10)를 잡아가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배우가 아닌 창작진들은 이런 방식의 공연 유통에서 과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영상화되는 연극무대 (위)뒤에서 활동하는 창작진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은 영화산업에 종사자들과 똑같은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영국 내 영화촬영 시의 상팀의 하루 인건비는 약 50만 원(£350)인 반면 무대의상은 6만5천 원(£45)으로 약 8배의 차이가 인정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환반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사진: National Theatre 제공)



<위 호스>(사진: National Theatre 제공)

하지만 한 번 촬영된 공연이 반복적으로 상연되고 회를 거듭할수록 수십만의 관객이 보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이 확산되면서 배우협회(Equity)가 소속된 연극배우들의 작품이 영상매체로 녹화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는 동안 스태프들과 창작진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놀랍게도 무대 공연의 영상화는 이제 연극도 영화도 아닌 새로운 장르로 인식되어 넷플릭스(Netflix)와 아마존(Amazon)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A급 스타 배우들이 출연해 지극히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소문난 공연을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도 앞으로 흥미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디지털 시어터'와 '국립극장 라이브'가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영화관에서 영상으로 보는 연극, 무대크루(Crew)인지, 필름크루인지, 그리고 이런 장르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복무하는 연극인들에게도 이젠 적절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